

# 공수처장 추천위 다시 가동? ... 민주 "야당 시간끌기 안 통해"

### 박병석 의장 중재안 수용 25일 4차 회의 개최 조율 전면전 위한 '명분쌓기' 인دت

파행으로 치닫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파국을 각오했던 여야가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수용하면서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아지지 않는 가운데 전면전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후보 추천을 위한 재논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 간 이의가 없었다"면서 "추천위원장에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회동 직후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화해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천위는 오는 25일 4차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야당의 시간끌기에 말려들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법안소위(25일)를 시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30일), 12월 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순차 통과시키는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 시간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추천위에서 태도변화가 없는 한 진전을 예상할 수 없다.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후보군 추천부터 다시 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도저히 수용할 것 같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동의 가능한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법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천위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잘 해 봅시다” 23일 국회 의사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공수처법 해법’ 논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주먹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광주·전라에선 상승 리얼미터 조사...민주당 32.1%·국민의힘 3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5주 연속 하락해 42.7%를 기록한 반면 부정평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53.0%를 기록했다. 이 같은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지난 8월 2주차 조사 이후 석 달 만에 최대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6포인트 내린 42.7%를 기록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2.0포인트 오른 53.0%를 기록해 긍정·부정 격차는 10.3%포인트를 나타냈다. '모름·무응답'은 0.4%p 감소한 4.3%였다.

수도권에서 하락세가 컸다. 인천·경기는 6.6%포인트 하락해 41.4%, 서울은 3.5%포인트 하락해 38.6%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은 1.6%포인트 하락해 39.5%, 대구·경북은 1.5%포인트 하락해 24.2%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라는 11.4%포인트 올라 73.6%, 대전·세종·충청은 1.9%포인트 올라 44.5%였다.

각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해 양당 지지율 격차는 좁혀졌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0.7%포인트 내린 32.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7%포인트 상승한 30.0%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2.1%포인트로 5주 만에 오차범위 안의 흐름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건 9월 5주차 조사(31.2%) 이후 7주 만이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8.1%, 28.7%의 지지율을 보였다. 열린민주당은 전주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5.9%,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0.2%포인트 하락한 7.0%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5.5%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전세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고,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가덕도 신공항 변경 논란 등이 불거진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3.7%의 응답률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여의도 브리핑

### 김승남, 농촌 빈집 철거시 양도소득세 증액 없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



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혀왔다.

김승남 의원은 "빈집을 스스로 철거하려 해도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빈집 소유자가 쉽게 철거명령에 동의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과 도시 빈집의 원활한 철거를 유도할 수 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추가적인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윤재갑 "농업예산, 내년 국가 예산의 3%대 유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진도완도) 국회의원은 23일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농업예산 비중을 2021년도 국가예산 대비 3%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년도 정부예산은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농업 예산은 2.3%증한 16조1324억 원에 그쳐 전체 국가 예산 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은 국가 전체 인구의 18.8%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요산업이지만, 코로나19와 함께 자연재해, 외



래병해충 등으로 어려움이 빠져있다. 특히 올해 농촌은 코로나19와 기후이변에 따른 역대 최악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와 함께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의 피해도 겹쳤다.

윤재갑 의원은 "농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 된 산업이다"며 "국제기구들이 경고하는 식량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3%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야, 예산전쟁 돌입 증감액 놓고 조정 착수...한국판 뉴딜·3차 재난지원금 쟁점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막바지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증액심사의 각급액 안팎에서 세부사업별 예산을 증액하는 단계로, 국회 예산심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돌발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가능한 예산

소위는 23일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한다. 지금까지 12개 상임위 소관 예산을 들여다봤으며, 정부안 대비 약 8500억원 규모의 감액을 확정했다.

이날에는 정무위·여가위·운영위·문체위 등 4개 상임위 예산 1차 감액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심사에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감액심사가 마무리된다면 예산소위는 일단 휴회에 들어가고, 속도감 있는

심사를 위해 이튿날부터 정성호 예결위원장·박홍근 여당 간사·추경호 여당 간사·정부 측이 참여한 협상을 통해 정밀 조정에 착수한다. 본격적인 여야의 '예산 전쟁'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야당은 최소 50%를 감액해야 한다고 버리고 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선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제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 예산에 같이 넣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민식이법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 2021학년도 전기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미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문제 시험)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관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주요일정

구분	일정	산학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t.jnu.ac.kr)
입학원서 접수 (인터넷 작성)	2020. 11. 9.(월) 09:00 ~ 11. 25.(수) 18:00	산학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t.jnu.ac.kr)
구비서류 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2020. 11. 9.(월) 09:00 ~ 11. 25.(수) 18:00	
전형일시	2020. 12. 3.(목) 10:00 ~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20. 12. 23.(수) 10:00 예정	산학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인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3,600	2,680				골드(28)방2	3,21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3,110	1,880			스위트형 방2개	2,120	1,280
로얄(34)방3	4,890	3,4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